

혀의 질환 I

설균열 (舌龜裂, Fissured tongue, WHO 529.5)

설균열은 혀의 표면의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특징은 정상적으로 평탄한 혀의 표면에 불규칙하게 열구가 생긴것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가족력의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발병빈도는 인구의 1~5% 정도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많이 발생된다.

임상적으로 보면 혀 표면의 열구 형태는 길이, 양태, 깊이 등 모두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병리학적인 의미는 거의 없

으나 때로 열구 사이에 음식이 잔재하여 염증이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개는 환자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채 지나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와같은 통증등에 의하여 관찰함으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열구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경우를 일명 Scrotal tongue이라고도 한다.

이 설균열은 지도상설(geographic tontue)과 병행하여 나타나

기도 함으로 원인이 다소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도 있다. 특별한 치료법은 요구되지 않으나 깊은 열구속에 있는 음식물 잔사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 즉 3% H<sup>2</sup>O<sup>2</sup>로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따뜻한 물로 양치로 함으로써 염증등에 의한 불편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때에 따라서 암에 대한 공포증 환자에게는 충분한 설명과 확신으로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림 1. 서울대병원 구강진단과에 내원한 34세의 남자로서 설배면 중심부에 깊은 열구를 볼 수 있다.



그림 2. 서울대병원 구강진단과에 내원한 38세의 남자로서 설배면 중심부와 아울러 전표면에 다양한 크기의 열구를 볼 수 있다.

#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 · 중구 봉래동 1가 83번지 (광풍B/D 601호)

☎ 756 - 2875 · 2876